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2018학년도 3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 국어 영역 •

국어 정답

1	㉔	2	㉓	3	㉓	4	㉒	5	㉒
6	㉑	7	㉑	8	㉒	9	㉑	10	㉔
11	㉓	12	㉑	13	㉑	14	㉑	15	㉑
16	㉒	17	㉑	18	㉑	19	㉒	20	㉑
21	㉑	22	㉔	23	㉒	24	㉓	25	㉑
26	㉔	27	㉔	28	㉓	29	㉒	30	㉑
31	㉑	32	㉑	33	㉓	34	㉔	35	㉑
36	㉑	37	㉔	38	㉒	39	㉓	40	㉒
41	㉑	42	㉓	43	㉔	44	㉑	45	㉔

해 설

1. [출제의도] 발표 계획이 발표에 반영되었는지를 파악한다.

발표에는 제로 에너지 주택의 장점만 언급되어 있으므로, 중심 화제의 장단점을 바탕으로 유용성과 한계가 함께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는 발표 계획은 발표에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오답풀이] ① 발표자는 국토교통부와 ○○ 건축학회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들을 발표에 활용했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정보의 출처를 밝혀 발표 내용의 신뢰성을 높여야겠다는 발표 계획은 발표에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② 발표자는 화석 에너지 고갈과 환경 오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에너지 절약과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최근의 상황을 언급하면서 발표를 시작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의 상황을 언급하며 화제 선정의 이유를 제시해야겠다는 발표자의 발표 계획은 발표에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③ 발표자는 에너지 자립형 주택이 우리나라에서도 성공적으로 뿌리내려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며 발표를 마무리했다. 따라서 발표 내용과 관련된 기대감을 드러내며 발표를 마무리해야겠다는 발표 계획은 발표에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④ 발표자는 주택에서 소비되는 에너지가 세계 에너지 소비량의 36%를 차지하는 만큼 발표에 많은 관심을 갖고 경청해 달라고 했다. 따라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여 화제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 내야겠다는 발표 계획은 발표에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출제의도] 발표에 자료를 활용하는 방식을 이해한다.

발표자는 아르곤 가스를 채운 3중창의 단열 효과를 설명하기 위해 제로 에너지 주택에서 창문을 닫고 실내 온도의 변화를 측정하는 실험을 자료 영상으로 보여 주었다.

[오답풀이] ① 발표자는 ㉠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된 모습을 제시하기는 하였으나, 이것을 통해 패널의 제작 원리를 설명하려는 것은 아니다. 패널의 제작 원리는 발표 주제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의 자료를 통해서 설명할 수도 없는 내용이다. ② 발표자는 땅속 160m에 수십 개의 관을 박아 지열을 끌어 올리는 장치가 ㉡의 화면에서는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따라서 ㉡에 지열을 끌어 올리는 장치를 제시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발표자가 ㉢에서 보여 준 두꺼운 외벽은 외벽 구조의 내구성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외벽의 단열 효과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외벽 구조의 내구성에 관한 내용은 문맥상 어울리지 않는 내용이다. ⑤ 발표자가 ㉣에 폐열 회수 순환 장치가 설치된 실내의 모습을 제시한 것은 맞지만, 이것을 통해 열 손실의 다양한 원인을 분석한 것은 아니다. ㉣은 폐열 회수 순환 장치가 실내에 단순히 설치된 장면이므로, 이것을 통해 열 손실의 다양한 원인을 분석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3. [출제의도] 발표를 들은 청중의 반응을 분석적으로 이해한다.**

‘청자 2’는 발표를 듣고 지열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생산하는 주택의 경제성에 대해 궁금해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문을 스스로 해결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풀이] ① ‘청자 1’은 ‘태양광 에너지’, ‘폐열 회수’ 등과 같은 용어의 의미에 대해 궁금해 하고 있다. 따라서 용어에 대한 설명의 부족함을 느꼈다고 할 수 있다. ② ‘청자 1’은 집에서 에어컨을 많이 틀어 어머니께 꾸중을 들은 적이 있음을 언급하면서 발표 내용에 공감을 드러내고 있다. ④ ‘청자 2’는 발표 내용 중 패시브 공법의 내용을 자신의 보고서 과제 해결에 활용할 생각을 하고 있다. ⑤ ‘청자 2’는 발표자가 시간에 쫓겨 발표를 서둘러 마무리한 게 아쉬웠다고 했다. 따라서 발표자가 정해진 발표 시간을 잘 활용하지 못했다고 평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출제의도] 대화 참여자들의 말하기 방식을 파악한다.**

㉠에서 ‘민수’는 학생들이 도서관에 오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학생들이 도서관에 오지 않는 이유가 도서관에 흥미로운 책이 없어서가 아니라 흥미로운 책에 대한 안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민수’가 자신의 견해를 수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풀이] ① ‘규연’은 ‘희찬’에게 흥미를 끄는 책은 어떠한 책인지에 대해 물으며 추가적인 정보를 요청하고 있다. ③ ‘규연’은 사서 선생님께서 도서관 앞 게시판에 새로 들어온 책에 대해 공지한다는 정보를 바탕으로, ‘윤지’의 말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④ ‘민수’는 책에 대해 안내하는 도서 게시판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도 그 게시판에는 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만을 제시해야 하는 한계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⑤ ‘희찬’이 학교 홈페이지의 정보 나눔방을 활용하자고 제안하자 ‘규연’은 관련 페이지를 따로 만들어 달라는 뜻인지에 대해 물으며 자신이 제대로 의도를 파악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5. [출제의도] 대화 맥락을 바탕으로 이어질 대화의 내용을 예측한다.**

(가)에서 ‘윤지’는 정보 나눔방에 올릴 글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책에서 학생들에게 호기심과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부분을 찾아 제시하고 그 내용을 중심으로 책에 대해 소개하자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규연’의 질문에 ‘윤지’는 책에서 학생들이 재미있어 할 내용이나 인상적인 내용을 발췌하여 글을 쓸 것이라고 대답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책에 대한 호기심과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부분을 찾아 제시하는 글을 쓰고자 하는 것이므로, 추리 소설과 판타지 소설의 목록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③ 책에 대한 쉽고 상세한 줄거리를 쓰는 것은 호기심과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부분을 책에서 찾아 제시하는 것이 아니다. ④ 전문가들의 서평을 찾아 소개하는 것은 호기심과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부분을 책에서 찾아 제시하겠다는 ‘윤지’의 생각과 맞지 않는다. ⑤ 학생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다양한 질문을 하는 것은 호기심과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부분을 책에서 찾아 제시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6. [출제의도] 글쓰기 전략에 대해 파악한다.**

(나)에서는 도서 대출 대장을 바탕으로 우리 학교 학생들의 하루 평균 도서 대출 권수가 15권 남짓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도서 대출 대장을 활용해 우리 학교 학생들의 도서관 이용률이 저조한 문제 상황을 부각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도서관 이용과 관련하여 학교 신문에 실린 설문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책에 대한 안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문제 상황의 원인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면서 사서 선생님께 효과적인 도서 안내 활동을 위해 학교 식당 안 벽면에 도서 게시판을 설치하고 학교 홈페이지의 정보 나눔방에 도서 관련 페이지를 만들어 달라고 건의하고 있다.

**7. [출제의도] 글의 흐름을 고려하여 글을 고쳐 쓴다.**

‘규연’은 ‘민수’의 검토 의견에 따라 독서가 학업, 진로 선택,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준다는 독서의 가치에 대해 서술한 문장을 삭제하였다. 또한 ‘고쳐 쓴 글’에 도서관의 도서 안내 활동으로 인해 학교 도서관이 활기차고 생기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것이라는, 건의 사항이 실현되었을 때의 기대 효과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였다.

[오답풀이] ② (나)에 서술된 독서의 가치에 대한 내용은 삭제하였으나, ‘고쳐 쓴 글’에 건의 사항 실현을 위한 노력에 대해 감사하는 내용을 추가하지는 않았다. ③, ⑤ (나)에서 도서관 활동의 의의에 대해 밝히고 있으나 ‘고쳐 쓴 글’에도 이 내용은 그대로 서술되어 있다. 도서관 활동의 의의에 대한 내용을 삭제한 것은 아니다. ④ (나)의 마지막 문단에는 독서 태도의 중요성에 대한 내용이 서술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고쳐

쓴 글'에서 이를 삭제한 것은 아니다.

**8. [출제의도] 초고에 반영되어 있는 글쓰기 계획을 파악한다.**

글쓰기가 초고에서 관계 기관 협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였지만, '○○마을 교육 공동체'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관계 기관에 요청하는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오답풀이]** ① 글쓰기는 '○○마을 교육 공동체'에 관한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홈페이지를 안내 주었다. ③ 글쓰기는 '○○마을 교육 공동체'에서 진행한 '희망 목공 학교'와 '마을 숲 생태 학교'를 소개하고, 내년에는 연극 및 직업 탐방과 관련된 사업이 더 열릴 예정임을 알려 주었다. ④ 글쓰기는 서두에 학생의 교육 활동 지원을 위해 마을 내 학생, 교직원, 학부모, 마을 주민 등이 교육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체라는 '마을 교육 공동체'의 개념을 제시하면서 글을 시작하였다. ⑤ 글쓰기는 '마을 교육 공동체' 사업이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할 것이라는 기대 효과를 제시하였다.

**9. [출제의도] 초고에 반영된 자료 활용 방안을 이해한다.**

글쓰기는 '마을 교육 공동체'가 미래 사회를 책임질 창의적 인재를 키우기 위한 것이라는 점만 언급하였을 뿐, '○○마을 교육 공동체' 사업이 극복해야 할 점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풀이]** ② 학교 교육과 연계한 사업의 하나로, 방과 후 학교와 연계한 '신나는 국악 교실'을 소개하였다. ③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과정에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여 얻은 효과의 하나로, '희망 목공 학교'에서 연간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과정에 학생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학생들이 주인 의식을 갖고 창의성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었다는 내용을 제시하였다. ④ ㉠의 정보는 '희망 목공 학교'에 대한 학생 만족도가 높았음을 보여 줄 수 있는 자료로, '희망 목공 학교'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내용이 초고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은 인적·물적 자원의 한계로 인해 공교육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교육 활동이 있다는 내용으로, 이와 같은 내용이 초고에 반영되어 있다.

**10. [출제의도] 조건에 따라 쓴 홍보 문구의 적절성을 파악한다.**

'마을 교육 공동체는 학교에서 체험하기 어려운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합니다.'에는 ㉠에 담긴 '마을 교육 공동체'의 특성이 반영되어 있고, '마을 교육 공동체에서의 활동을 통해 더 크게 성장하기 바랍니다.'에는 ㉡를 권유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좋은 양분을 먹고 자란 나무처럼'에서는 직유가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함께 열매를 가꾸어 더욱 풍성하게 수확합니다.'에서 ㉢를 권유하는 내용은 찾을 수 있으나, 나머지 조건은 홍보 문구에서 찾기 어렵다. ② '마을 교육 공동체는 나침반처럼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알려 줍니다.'에서 직유가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나, 나머지 조건은 홍보 문구에서 찾기 어렵다. ③ '마을을 지키는 당산나무처럼 마을 교육 공동체는 믿음직스럽습니다.'에서 직유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으나, 나머지 조건은 홍보 문구에서 찾기 어렵다. ④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것들을 학교 밖 마을 교육 공동체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와 '학교와 마을이 함께 여러분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합니다.'에는 ㉣에 담긴 '마을 교육 공동체'의 특성이 반영되었으나, 나머지 조건은 홍보 문구에서 찾기 어렵다.

**11. [출제의도] 음운 변동의 조건을 파악한다.**

비음화, 자음 축약(거센소리되기)과 같은 현상은 음운과 관련된 조건만으로 규칙성을 파악할 수 있다. 파열음인 예사소리 뒤에서 일어나는 된소리되기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용언 어간 말 비음 뒤에서 일어나는 된소리되기는 용언의 어간과 어미라는 형태소와 관련된 조건까지 필요하다. <보기>의 ㉠은 발음될 때 파열음인 예사소리 뒤에서 일어나는 된소리되기가 일어나고 ㉡는 자음 축약이 일어난다. 이 두 현상은 모두 음운과 관련된 조건만 필요한 음운 변동이다.

**[오답풀이]** ① 장애음과 비음이 이어지거나 예사소리인 파열음 뒤에 예사소리가 이어질 때에는 자연스럽게 발음하기가 어려워 예외 없이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② 국어에서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음운 변동은 표준 발음에 반영한다. ④ 자음 축약이 일어날 때에는 형태소와 관련된 조건이 필요하다. ⑤ '뜯기-'는 어간이며, 예사소리인 파열음 뒤에서 된소리되기가 일어난다.

**12. [출제의도] 한글 맞춤법을 이해한다.**

예사소리인 파열음 뒤에서 일어나는 된소리되기는 예외 없이 일어나는 음운 변동이다. 따라서 '국수'로 적더라도 발음은 [국쑤]로 하게 된다. 이 점을 고려하여 한글 맞춤법에서는 '국수, 몹시'와 같은 단어를 제5항에 '다만' 규정을 두어 발음에서 나는 된소리를 예사소리로 적게 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두 모음 사이라는 음운과 관련된 조건만으로는 된소리되기를 설명할 수 없다. 그래서 한글 맞춤법 제5항에는 뚜렷한 까닭 없이 된소리가 일어나는 조건으로 '두 모음 사이'를 제시하고 있다. ② 예사 소리의 파열음 뒤에서 일어나는 된소리되기는 규칙적인 현상이다. ③ '딱딱'으로 적어도 발음은 예외 없이 [딱딱]이 된다. 그러나 한글 맞춤법에서는 제5항의 '다만' 규정과 제13항을 두어 '딱딱'으로 적게 하고 있다. ⑤ '잔뜩'은 부사이며, 한글맞춤법 제5항에 'ㄴ, ㄹ, ㅁ, ㅇ' 받침 뒤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된소리가 나는 단어로 제시되어 있다.

**13. [출제의도] 단어의 형성 방법을 파악한다.**

통사적 합성어는 단어 형성 방식이 일반적인 문장 형성 방식과 부합하는 합성어이며, 비통사적 합성어는 단어 형성 방식이 일반적인 문장 형성 방식과 부합하지 않는다. ㉠에서 '굽-', '밀-'은 동사 어근, '도구'는 명사 어근이다. 동사 어근이 어미와 결합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명사 어근과 직접 결합하는 것은 일반적인 문장 형성 방식과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에서 제시된 단어들은 비통사적 합성어이므로, 이들을 파생어로 진술한 ④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에서 '오이', '껍질', '칼'은 명사 어근이다. 명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것은 일반적인 문장 형성 방식과 부합한다. ② ㉠에서 '값작값작', '사각사각'은 부사 어근, '칼'은 명사 어근이다. 부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것은 일반적인 문장 형성 방식과 부합하지 않는다. ③ ㉠에서 '까-', '깎-'은 동사 어근, '-개'는 접사이다. ⑤ ㉠에서 '박박', '쓱쓱'은 부사 어근, '-이'는 접사이다.

**14. [출제의도] 문장의 짜임을 파악한다.**

㉠에서 '내 친구의 것이다'는 '내 친구의 것'이라는 구에 '이다'라는 서술격 조사가 붙어 주어인 '자전거는'을 서술하고 있으나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안긴문장이 아니다. ㉡에서 '손가락이 길다'는 '손가락이'라는 주어와 '길다'라는 서술어를 갖추고 있으면서 문장 전체의 주어인 '영수는'를 서술하고 있으므로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문장에 해당한다.

[오답풀이] ② ㉠의 '내가 빌린'은 주어와 서술어를 갖춘 문장으로 용언의 어간에 관형사형 어미를 붙여 체언인 '자전거'를 수식하는 안긴문장을 만든 것이다. ㉡의 '마을에 사는'은 주어인 '사람들이'가 생략되고 관형사절로 쓰여서 체언인 '사람들'을 수식하는 안긴문장이다. ③ ㉠의 '공연이 시작되기'는 안긴 문장으로, 이 문장에서 부사어는 나타나지 않는다. ㉡의 '피아노를 잘 치는'은 안긴 문장으로, 이 문장에서 '잘'은 부사어에 해당하며, '손가락이 누구보다 길다'는 안긴 문장으로, 이 문장에서 '누구보다'는 부사어에 해당한다. ④ ㉠의 '공연이 시작되기'는 명사인 '전'을 꾸며 주는 관형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문장이다. ㉡의 '파수꾼이 마을에 사는 사람들을 속였음'은 명사절로 안긴 문장으로 조사 '이'와 결합하여 문장에서 주어의 기능을 하고 있다. ⑤ ㉡의 '피아노를 누구보다 잘 치는'은 주어인 '영수가'가 생략되어 있는 안긴문장이다. ㉢의 '마을에 사는'은 주어인 '사람들이'가 생략되어 있는 안긴문장이다.

**15. [출제의도] 중세 국어의 조사에 대해 이해한다.**

'사스미'는 체언인 '둥'을 꾸며 주는 관형어로, 체언인 '사슴'에 관형격 조사 '이'를 붙인 것이다. '도즈기'는 체언인 '입'을 꾸며 주는 관형어로, 체언인 '도죽'에 관형격 조사 '이'를 붙인 것이다.

[오답풀이] ① '드리'는 '들'에 주격 조사 '이'를 붙인 것이다. '비취요미'는 '비취욘'에 '이'를 붙인 것으로 이때 '이'는 다른 대상과 비교하는 의미를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이다. ② '네'는 '너'에 주격 조사 'ㅣ'를 붙인 것이고, '부터'는 '부터'에 보격 조사 'ㅣ'를 붙인 것이다. ③ '부텃'은 '똘'을 꾸며 주는 관형어로 '부터'에 관형격 조사 'ㅅ'을 붙인 것이다. '가짓'은 '상(相)'을 꾸며 주는 관형어로 '가지'에 관형격 조사 'ㅅ'을 붙인 것이다. ⑤ '모똘'은 '똘'에 목적격 조사 '을'을 붙인 것이고, '부터를'은 '부터'에 목적격 조사 '를'을 붙인 것으로, 형태가 다른 목적격 조사를 사용하고 있다.

**[16~20] (인문) 조광제, 『언어와 세계의 피비우스』**

이 글은 비트겐슈타인의 후기 철학의 주요 입장과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비트겐슈타인은 전기 철학에서 '그림 이론'을 통해 낱말의 의미는 그 낱말이 '지시하는 대상'이라고 보았으나, 후기 철학에서는 전기 철학과 달리 낱말의 의미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낱말이 사용되는 맥락과 규칙에 따라 파악된다고 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와 같은 비트겐슈타인의 주장을 '가족 유사성', '언어 놀이' 등의 주요 개념과 함께 설명하고 있다.

**16.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이해한다.**

이 글에 따르면, 전기 철학에서 비트겐슈타인은 언어의 낱말들은 대상을 명명하고, 문장들은 이러한 이름들이 결합한 것이라고 보았다. 이것은 비트겐슈타인이 낱말의 의미는 그것이 '지시하는 대상'이고, 문장은 그러한 낱말들의 결합이라고 생각했음을 나타낸다. 그리고 비트겐슈타인은 후기 철학에서 낱말의 의미는 그것의 사용에 있다고 했다. 따라서 그가 전기 철학에서 낱말들의 의미가 문장이 수행하는 기능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았다고 말하는 것은 글의 내용을 적절하게 이해한 것이 아니다.

**[오답풀이]** ① 비트겐슈타인은 전기 철학에서 낱말의 의미는 그 낱말이 '지시하는 대상'이라고 보았다. ③ 후기 철학에서 비트겐슈타인은 언어의 규칙이 삶의 형식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에 공적인 것이라고 했다. ④ 후기 철학에서 비트겐슈타인은 언어 놀이에서 규칙에 따르는 어떤 활동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언어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리고 그는 규칙성이 없는 언어를 '사적 언어'라고 규정했다. 그에 따르면, 사적 언어는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언어 놀이가 불가능한 것이다. ⑤ 후기 철학에서 비트겐슈타인은 삶의 형식의 일치가 언어 규칙의 작동 가능성의 전제라고 하였다.

**17. [출제의도] 글의 핵심 내용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한다.**

비트겐슈타인은 언어 낱말의 의미가 본질적인 하나의 의미로 사용되지 않고 맥락과 규칙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사용된다고 본다. 이와 같은 견해는 언어의 낱말이 '언어 놀이'에서 규칙과 맥락에 따라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기>의 (가), (나) 사례는 '벽돌', '석판'이 다른 의미로 사용된 '언어 놀이'를 보여 준다. 따라서 (가), (나)에서 '언어 놀이'의 기능이 맥락에 따라 달라지지 않음을 나타낸다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② (가), (나)에서는 '벽돌', '석판'을 사용해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삶의 형식에 기반한 규칙에 따라 건축가와 조수, 사범과 훈련생이 말하고 행동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즉 건축가와 조수, 사범과 훈련생이 공유하고 있는 삶의 형식이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것이다. ③ (가), (나)는 언어와 그 언어가 뒤엎혀 있는 행위들로 구성된 총체인 '언어 놀이'의 사례이다. ④ (가), (나)에서 건축가와 사범은 '벽돌', '석판'을 발화하고 있다. 이 발화를 들은 조수와 훈련생은 서로 다른 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조수와 훈련생이 각기 다른 규칙에 따라 '언어 놀이'에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⑤ 조수와 훈련생이 '벽돌'과 '석판'이라는 말을 각각의 대상을 지시하는 것으로만 안다면 (가), (나)의 맥락에 맞게 행위를 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는 각각의 상황에서 '언어 놀이'가 이루어질 수 없음을 나타낸다.

**18. [출제의도] 글의 핵심 내용을 구체적 상황에 적용한다.**

[A]에서는 언어 사용 주체들의 '삶의 형식의 일치'가 언어 규칙이 작동하는 전제가 된다고 하고 있다. 이는 언어가 의사소통의 도구일 수 있으려면 '정의의 일치'뿐만 아니라 '판단에서의 일치'도 요구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토끼나 오리의 형상에 관한 '삶의 형식의 일치'가 이루어진 사람들은 '토끼'나 '오리'에 대한 정의가 일치할 것이며, 그에 따라 '판단에서의 일치'도 이루어질 것이다.

**19. [출제의도] 글의 핵심 정보를 이해한다.**

㉠은 가족 구성원들 간의 닮음을 언어에 적용한 개념으로 '서로 겹치고 교차하는 유사성들의 복잡한 그물'을 의미한다. 예컨대 '놀이'라는 말은 카드놀이, 숨바꼭질, 끝말잇기, 축구, 야구 등 다양한 대상을 지칭할 수 있는데, 이것들 전부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성질은 없고 부분들 간에 겹치고 교차하는 성질들이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가령 '놀이'라는 낱말이 있을 때, 그 말이 본질적인 하나의 의미로 사용되지 않고 맥락과 규칙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사용됨을 나타낸다. 즉 언어가 그 쓰임새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사용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20. [출제의도] 글의 핵심 내용을 이해한다.**

㉡에서는 비트겐슈타인의 입장과 관련하여 사적 언어의 가능성을 함축하는, '나의 의식'을 출발점으로 삼는 철학적 제재들의 허구성을 말하고 있다. 비트겐슈타인은 사적 언어가 규칙성이 없는 언어라고 규정하였다. 규칙성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입장에서 사적 언어의 가능성을 함축하는 철학적 제재들의 허구성을 비판한다는 것은, 규칙을 따를 수 없어 이해할 수 없는 언어의 허구성을 비판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은 '나의 의식'에 기초한 사적 언어는 규칙을 따를 수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21 ~ 24] (과학) 강영숙 외, 『인체생리학』**

이 글은 콩팥에서 일어나는 혈액 여과의 과정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는 글이다. 콩팥의 혈액 여과는 모세

혈관 뭉치인 사구체에서 일어나는데, 사구체 여과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사구체로 들어온 혈액을 사구체막 바깥쪽으로 밀어 주는 힘이 필요하다. 사구체 여과가 일어나는 사구체막은 모세 혈관의 벽인 내피세포 층, 기저막, 보먼주머니 내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사구체 모세 혈관의 벽에는 많은 구멍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신체 기관의 모세 혈관들보다 높은 투과성을 보인다. 이러한 사구체의 구조적 특성으로 사구체 여과는 촉진되지만 여과를 방해하는 압력이 발생하기도 한다. 모세 혈관과 보먼주머니 내강의 단백질 농도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혈장 교질 삼투압’이나 보먼주머니 내강에 여과액이 도달함에 따라 발생하는 ‘보먼주머니 수압’이 그에 해당한다. 따라서 여과를 촉진하는 압력인 모세 혈관의 혈압과 여과를 방해하는 압력의 차에 의해 ‘실제 여과압’은 결정이 된다. 여과압의 변동은 생명 유지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자가 조절 기능에 의해 조절된다. 자가 조절은 주로 들세동맥의 직경을 조절함으로써 가능하다.

**21.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이해한다.**

알부민과 같이 작은 단백질들이 음전하를 띠고 기저막의 당단백질도 음전하를 띠기 때문에 알부민과 같은 작은 단백질들은 모세 혈관 바깥쪽으로 빠져나가지 못한다. 따라서 기저막의 당단백질이 알부민과 같이 작은 단백질들과 상반된 전하를 띤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② 발세포 돌기 사이의 틈으로 여과액이 빠져나오면 보먼주머니 내강에 도달하게 된다. ③ 질환이 발생하지 않은 정상 상태에서 혈장 교질 삼투압과 보먼주머니 수압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④ 사구체의 기저막은 콜라겐과 당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 ⑤ 물, 요소, 나트륨, 포도당 등과 같이 작은 물질들은 보먼주머니를 통해 세뇨관으로 나갈 수 있다.

**22. [출제의도] 핵심 개념들 간의 관계를 이해한다.**

㉗는 사구체의 모세 혈관이며, ㉘는 보먼주머니 내강이다. ㉗에서는 모세 혈관의 혈압이 작용하며, ㉘에서는 여과액의 수압에 의한 보먼주머니 수압과 단백질의 농도 차에 의한 혈장 교질 삼투압이 작용한다. 혈장 교질 삼투압은 여과를 방해하는 압력으로 농도의 차가 클수록 높아진다. 따라서 단백질 농도 차이가 감소하면 혈장 교질 삼투압은 낮아진다. 혈장 교질 삼투압이 낮아지면 실제 여과압은 증가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혈액이 사구체막을 빠져나가는 과정이 사구체 여과이다. 사구체막은 모세 혈관 벽인 내피세포 층과 기저막, 보먼주머니 내층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노폐물과 독소는 내피세포 층의 구멍을 통해 빠져나간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② 콩팥의 자가 조절 기능에 의해 실제 여과압은 일정하게 유지되므로, 자가 조절 기능이 훼손되었다면 실제 여과압은 감소할 수 있다. ③ 보먼주머니에 도달하는 여과액에 의해 보먼주머니 수압이 발생한다. 보먼주머니 수압은 여과를 방해하는 압력이기 때문에 보먼주머니의 여과액이 줄어 보먼주머니 수압이 줄어들면 실제 여과압은 증가할 수 있다. ④ 사구체의 모세 혈관의 혈압은 모세 혈관에서 보먼주머니 쪽으로 작용한다. 보먼주머니 수압은 보먼주머니 쪽에서 모세 혈관 쪽으로 작용한다.

**23. [출제의도] 중심 내용을 통해 이유를 추론한다.**

마지막 단락에서 자가 조절은 주로 들세동맥의 직경을 조절함으로써 가능하다고 하였다. 혈압이 변하여도 자가 조절 기능을 통해 사구체 내로 유입되는 혈류량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다. 따라서 들세동맥의 직경이 조절되면 사구체로 유입되는 혈류량이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추론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들세동맥의 혈액 속도가 날세동맥의 혈액 속도보다 빠르기 때문이라는 이해는 적절하지 않다. ⑤ 혈장 교질 삼투압과 보먼주머니 수압은 질환이 없는 상태에서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혈장 교질 삼투압과 보먼주머니 수압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자가 조절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24. [출제의도]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파악한다.**

‘억제’의 사전적 의미는 ‘정도나 한도를 넘어서 나아가려는 것을 억눌러 그치게 함.’이다. ‘조건을 붙여 내용을 제한함.’은 ‘제약’의 사전적 의미이다.

**[25 ~ 27] (고전소설) 남영로, 「옥루몽」**

이 작품은 64회의 회장체 장편 소설로, 구성이 치밀하고 묘사나 표현이 뛰어나며 등장인물들의 성격이 개성적으로 창조되어 있어 많은 인기를 얻었다. 초기 몽자류 소설인 「구운몽」의 서사 구조를 계승하면서 군담 소설, 영웅 소설, 여걸 소설, 가정 소설 등의 요소를 다층적으로 담고 있으며, 특히 당시 조선 사회가 지닌 부조리하고 부패한 현실과 이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작품의 특징 중의 하나는 ‘꿈속의 꿈’ 구조를 취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 ‘꿈속의 꿈’은 천상계와 지상계가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 주기도 하고,

꿈속의 지상계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시하기도 한다.

**25. [출제의도] 작품의 내용을 이해한다.**

양창곡은 벽성선을 만나러 갔으나 만나지 못하고 돌아오게 된다. 그러나 양창곡은 이를 기회로 그간 밤에만 보아서 감상할 수 없었던 벽성산의 진면목을 보기 위해 벽성산에 오른다. 따라서 양창곡이 벽성선을 찾기 위해 달밤에 벽성산을 올랐다는 것은 작품의 내용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오답풀이]** ② 밤에 찾아온 벽성선의 아리따운 자태를 본 양창곡은 정신이 흔들리고 마음이 황홀했다. ③ 양창곡은 꿈에서 보살에게 받은 병서를 여러 번 보지 않고도 깨달았다. ④ 벽성선은 자신의 꿈에 대해 말한 후 한번 이별하면 뒷기약이 없을 것이지만 군자의 대범함으로 마음에 둘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⑤ 벽성선은 거울을 보며 울다 죽은 난새에 대해 말한 후 양창곡을 모셔서 황홀하며 여한이 없다고 말하였다.

**26. [출제의도] 외제적 준거를 참고하여 작품의 내용을 파악한다.**

이 작품은 ‘꿈속의 꿈’이라는 설정이 주목되는데, 천상계의 인물이 꿈속에서 지상계의 삶을 살아가며 꿈속의 꿈을 통해 자신의 정체나 임무 등을 알게 되기도 하고, 꿈속인 지상계에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시를 받기도 한다. ㉠에서 벽성선이 들은 함께 가자는 양창곡의 말은 그가 유배에서 풀려나 돌아갈 때 같이 가자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양창곡이 벽성선에게 한 말은 벽성선이 천상계를 떠나 지상계로 되돌아오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오답풀이]** ㉠에서 보살은 양창곡과 제천선녀가 천상계의 인물이라는 것과 양창곡의 지상계에서의 임무를 알려 주고 있다. 또한 ㉠에서는 양창곡이 장차 유배에서 풀려날 것과 벽성선이 양창곡과 이별하게 될 것임을 예시하고 있다.

**27. [출제의도] 작품의 맥락 속에서 소재의 의미를 이해한다.**

㉡는 등글어졌다 이지러지는 속성을 통해 인연의 무상함을 말하고 있으며, 그 속에는 인연이 곧 단절될 것에 대한 벽성선의 슬픔이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는 변함없는 사랑을 하겠다는 양창곡의 다짐 속에 나타난 소재로 벽성선과 맺은 인연이 변함없이 지속되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28 ~ 33] (기술예술) 김중복 외, 『과학 교사를 위한 빛과 파동』**

우리는 흔히 그림에서보다는 사진에서 더 사실성을 느낀다. 사진은 기계적 장치에 의해 대상을 정확히 재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진 미학 이론에서는 초점이나 노출을 통해 대상을 변형시킨 사진도 사실성을 떠는가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펼쳤다. 이런 논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진기 주요 장치의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사진기의 초점 조절 장치는 광학 원리를 고려하여 렌즈와 필름 사이의 거리를 조절한다. 그래서 피사체의 상이 필름 면에 맺히게 한다. 조리개와 셔터는 노출을 결정하는 장치이다. 조리개는 렌즈 바로 뒤에 있는 구멍으로, 그 면적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어서 빛의 양을 조절한다. 셔터는 촬영 순간 열렸다 닫혀서 빛의 양을 조절한다. 따라서 사진가는 의도적으로 빛의 양을 조절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진기 장치의 특성은 사진으로 대상을 정확하게 묘사할 수도, 의도적으로 대상을 변형할 수도 있게 한다. 대상을 변형시킨 사진에 대해 바쟁은 그러한 사진 역시 기계적 방식으로 기록된 것이므로 사실성을 떼다고 본다. 월튼은 대상을 정확히 재현한 사진이 사실성을 갖는다고 본다. 또 다른 견해로는 사진은 빛 이미지의 자취를 기록한 것이므로 사진의 사실성은 사진이 대상을 정확히 재현하는지 여부와는 무관하다고 보는 것이 있다.

**28. [출제의도] 글의 서술상의 특징을 파악한다.**

이 글은 사진기의 주요 장치인 초점 조절 장치, 조리개, 셔터를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진의 사실성에 대한 바쟁과 월튼 그리고 또 다른 견해를 소개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진기의 주요 장치를 설명하고, 사진의 사실성에 대한 여러 사진 미학 이론의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사진기의 역사를 소개하고 있지 않으며, 사진기를 다룰 때 유의해야 할 점을 설명하고 있지 않다. ② 사진의 사실성을 소개하고 있지만 사진 기술의 발전 과정을 밝히고 있지 않다. ④ 사진기의 여러 기능을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사진이 대상의 실제 모습을 드러내는 데 한계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지 않다. ⑤ 사진에서 초점과 노출이 중요한 이유를 부분적으로 알 수 있지만 사진 미학이 사진기 발달에 끼친 영향을 설명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29.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이해한다.

초점 조절 장치는 렌즈와 필름 사이를 조절하여 상이 필름 면에 맺히게 한다. 사진기의 초점 거리는 각 렌즈마다 고정되어 있으므로 초점 거리는 변경되지 않는다.

[오답풀이] ① 조리개 값이 커지면, 즉 조리개의 지름이 작아지면 광축에 가까운 빛만 입사되어 심도가 깊어진다. ③ 렌즈 공식은 물체 거리, 상 거리, 초점 거리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표현한 것이므로, 초점 거리와 상 거리만 알면 물체 거리도 구할 수 있다. ④ 사진기 렌즈는 중심보다 가장자리가 더 많이 굽은 볼록 렌즈이다. 그런데 광축에 평행으로 입사한 빛들은 렌즈 면이 굽을수록 더 많이 굴절된다. 따라서 광축에 평행으로 입사한 빛들은 사진기 렌즈에서 굴절되어 렌즈 뒤의 한 점에 모이게 된다.

30. [출제의도] 글의 핵심 정보를 이해한다.

연필을 렌즈 공식으로 표현하면  $\frac{1}{40} + \frac{1}{i} = \frac{1}{20}$  이므로 연필의  $i$ 는 40 cm이고, 공을 렌즈 공식으로 표현하면  $\frac{1}{30} + \frac{1}{i} = \frac{1}{20}$  이므로 공의  $i$ 는 60 cm이다.

[오답풀이] ② 나무의  $o$ 는 무한대에 가깝다. 따라서 나무를 렌즈 공식으로 표현하면  $\frac{1}{\infty} + \frac{1}{i} = \frac{1}{f}$  이므로 나무의  $i$ 는 렌즈의  $f$ 와 거의 같다. ③  $i$ 를  $o$ 로 나눈 값은 상의 크기를 피사체의 크기로 나눈 값과 같은데, 연필의  $i$ 와  $o$ 는 모두 40 cm이므로 연필의 크기가 20 cm라면 그 상의 크기도 20 cm가 된다. ④ 공의  $i$ 는 60 cm이고  $o$ 는 30 cm이므로 공은 실제 크기보다 상의 크기가 더 크다. ⑤ 공의  $o$ 는 15 cm이고 렌즈의  $f$ 는 20 cm이므로,  $o$ 가  $f$ 보다 작아서 렌즈 뒤에 상이 맺히지 않는다.

31. [출제의도] 글의 핵심 내용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한다.

피사체의 잔상이 보이는 것은 셔터 속도가 느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셔터 속도를 빠르게 해야 잔상이 보이지 않게 된다. 그런데 셔터 속도를 빨리하면 노출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원래의 밝기를 유지하려면 조리개 값을 적절히 작게 해야 한다.

[오답풀이] ① 사진에 나온 피사체가 주변 사물과 차이 없이 선명하게 보이는 것은 심도가 깊기 때문으로, 피사체만 선명하게 보이게 하려면 조리개 값을 작게 하여 심도를 얇게 해야 한다. ② 사진에 피사체의 상이 허영게 번져 보이는 것은 노출이 과다하기 때문으로, 빛의 양을 줄여야 한다. ③ 사진에 피사체의 상이 어둡게 보이는 것은 노출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이 경우에는 셔터 속도를 느리게 해야 상이 밝게 보인다. ⑤ 사진에 초점이 맞는 피사체의 거리가 넓은 경우를 심도가 깊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셔터 속도가 아니라 조리개 값을 조절해야 한다.

32.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이해한다.

㉞에 따르면 모든 사진은 사실성을 띠므로 사진가가 어떤 주관 가지고 대상을 찍더라도 사실성을 띠고 있다. 그러므로 사진에는 인간의 주관 포함되어도 무방하다.

[오답풀이] ① ㉠은 인간의 주관에 개입되는 측면을 인정하더라도 기계적 방식으로 대상을 기록한다는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고 본다. 따라서 피사체 일부가 초점이 맞지 않더라도 그 사진은 사실성을 띤다. ② ㉡은 육안으로 직접 보았을 법한 대로 대상을 묘사하는 사진이 사실성을 띤다고 보았다. ③ ㉢은 정밀한 초상화라고 하더라도 인물의 특징을 추가하거나 누락할 수 있으므로 대상을 사실적으로 재현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⑤ ㉤은 발자국은 대상 자체의 자취인 반면 사진은 빛 이미지의 자취라는 점에서 서로 구별된다고 보고 있다.

33. [출제의도] 단어의 문맥적 의미를 파악한다.

㉠의 ‘줄이다’는 ‘물체의 길이나 넓이, 부피 따위를 본디보다 작아지게 하다.’라는 의미로 쓰였다. ㉢의 ‘줄이다’ 역시 이러한 문맥적 의미로 쓰였다.

[오답풀이] ① ‘접히거나 개킨 것 따위를 널찍하게 퍼다.’의 의미로 쓰였는데, ㉠은 ‘생각 따위를 전개하거나 발전시키다.’의 의미로 쓰였다. ② ‘여러 사람이 한곳에 오거나 한 단체에 들다.’의 의미로 쓰였는데, ㉢은 ‘한데 합쳐지다.’의 의미로 쓰였다. ④ ‘공간적 거리나 수준 따위가 일정한 선에 닿다.’의 의미로 쓰였는데, ㉠은 ‘영향이나 작용 따위를 대상에 가하다.’의 의미로 쓰였다. ⑤ ‘점이나 문장 부호 따위를 써넣다.’의 의미

로 쓰였는데, ㉠은 ‘어떤 대상을 촬영기로 비추어 그 모양을 옮기다.’의 의미로 쓰였다.

[34 ~ 38] (고전시가복합) (가) 송순, 「면양정가」 / (나) 나위소, 「강호가가」 / (다) 채수, 「석가산폭포기」

(가) 송순, 「면양정가」

조선 전기 사대부 가사로 작가가 벼슬에서 물러나 고향에 돌아가 면양정을 지어 생활하는 모습을 그린 작품이다. 면양정 주변의 경치와 그에 따른 흥취를 적절하게 형상화하여 문학적 가치가 높은 작품으로 평가 받는다. 자연 친화 사상과 유교적 충의 이념을 결합한 강호가도(江湖歌道)의 특성이 잘 드러나는 작품으로 볼 수 있다. 지문에 제시된 부분은 이 작품의 결사 부분으로 자연 속의 풍류 생활에 대한 만족감과 임금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드러내고 있다.

(나) 나위소, 「강호가가」

17세기의 문신인 나위소가 지은 총 9수의 연시조로 강호가도 계열에 해당하는 작품이다. 작가가 벼슬에서 물러나 고향의 자연을 즐기는 유희자적인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자연 속에서 아무 속박을 받지 않고 마음껏 즐기는 모습을 ‘강호한적’이라는 시어로 압축하여 드러내고 있다.

(다) 채수, 「석가산폭포기」

이 글은 작가가 인공으로 석가산과 폭포를 만들게 된 과정과 그것을 완성한 후 미각, 시각, 청각의 세 가지 즐거움을 누리는 자족감을 표현한 글이다. 노쇠하여 직접 자연(산수)을 찾지 못하게 된 작가는 종남의 별장에 석가산을 만들어 그것을 완상하며 실제 자연을 찾아 즐기는 것과 같은 즐거움을 맛보고 있다. 자연에 실재하는 산과 인공적으로 만든 석가산의 진가(眞假)를 구별하지 않는 인식을 통해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즐기며 만족하는 우리 조상들의 고상한 풍취를 느낄 수 있다.

34. [출제의도] 표현상 특징을 비교하여 이해한다.

(가)~(다)에는 원경에서 근경으로 시선을 이동하는 상황이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풀이] ① (가)와 (나)는 4음보 율격을 통해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② (가)의 ‘온가짓 소리로 취흥(醉興)을 비야거니(온갖 소리로 취흥을 재촉하니)’, ‘을프락 푼람허락(울었다가 휘파람을 불었다가)’과 (다)의 ‘짜아 하고 쏟아지는 폭포 소리’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나)에서는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병’에 빗대고 있으며, ‘물결이 비단 일다(물결이 비단 같다)’와 같은 비유적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 (다)에서는 ‘폭포 소리가 마치 요란한 관현악기 소리 같아서 귀를 즐겁게 한다.’ 등을 통해 비유적 표현을 확인할 수 있다. ④ (가)에서는 이태백과 자신을 비교하고 있고, (나)에서는 <제9수>에서 고기 잡고 낚시질하는 생활을 괴롭게 여기는 생각 없는 아이들과 고기 잡고 낚시질하는 생활을 ‘강호한적’으로 여기며 즐기는 화자를 비교하고 있다. (다)에서는 옛사람들의 가짜 산 조성 방식과 자신의 조성 방식을, 세상의 호걸들의 태도와 자신의 태도를 비교하고 있다.

35. [출제의도] 작품 간의 공통점을 파악한다.

<보기 1>은 우리 문학사에 나타나는 시가의 특정한 경향인 강호가도(江湖歌道)를 언급한 것이다. (가)의 ‘이 몸이 이령군도 역군은(赤君恩)이샅다’와 (나)의 ‘귀 성은(聖恩)인가 흐노라’에서 임금의 은혜를 떠올리며 감사하는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ㄱ). (가)의 ‘인간(人間)을 썬나 와도 내 몸이 겨를 업다’와 (나)의 ‘강호(江湖)에 바리연디 십년(十年) 맞기 되어세라(강호에서 생활한 지가 십 년이 넘게 되었구나.)’를 통해 속세와 거리를 두고 지내는 삶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ㄴ).

[오답풀이] (가)의 ‘술리 닉어거니 벗지라 업슬소냐’에서 자연 속의 흥취를 타인과 나누려는 마음가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나)의 ‘백구(白鷗)야 하 즐겨 말고려 세상(世上) 알가 흐노라’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화자가 누리는 자연 속의 흥취를 알지 못하기를 바라는 심정이 나타나 있다(ㄷ). (가)에서는 궁핍한 생활상이 드러나지 않으며, (나)도 벼슬을 그만둔 후 고기 잡고 낚시질하는 한가한 생활상이 나타날 뿐 궁핍한 생활상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ㄹ).

36. [출제의도] 구절의 의미를 파악한다.

㉠ 앞부분의 ‘그러나 나처럼 연못의 한가운데 산을 만들고 사면이 물로 둘러싸인 곳에 물을 끌어들여 산 위에 폭포를 만든 사람은 없었다.’를 통해 ㉠은 옛사람과 다른 방식으로 가산을 만든 것에 대한 자부심을 표출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37. [출제의도] 외재적 준거를 바탕으로 작품을 감상한다.

이 글에서 글쓴이가 언급한 세 가지 즐거움은 석가산을 만든 후 이를 완상하는 과정에서 맛보는 것이다. 그

리고 글쓴이가 석가산을 만들며 고충을 겪었다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글의 마지막 문장에서 글쓴이가 '세상의 호걸들은 모두 나의 이 취미를 비롯지만 나는 이것을 좋아하여 이것으로써 저들이 좋아하는 것과 바꾸지 않겠다.'라고 말한 것은 글쓴이의 자부심을 드러낸 것이지, 자신을 비롯한 사람들을 설득하려는 것으로 볼 수 없다.

**38. [출제의도] 작품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이해한다.**

'나'는 [A]에서 석가산을 만들었고, 이를 통해 [B]에서 미각, 시각, 청각과 관련한 세 가지 즐거움을 얻고 있다.

[오답풀이] ① '나'는 [A]에서 내적 갈등을 보이지 않고 있다. ③ [A]의 '계단'과 [B]의 '절벽'은 모두 석가산 안에 조성된 실제적 소재이다. ④ [A]의 '놀랍고 신기함에 감탄하였다.'를 통해 '사람들이 '물'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B]에서는 '이웃들이 '물'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이 나타나지 않는다. '아침저녁으로 마시니 입맛에 맞다'로 볼 때 오히려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⑤ [A]에 '물'을 집 안으로 끌어들이는 과정은 나타나 있으나, [B]에서 '물'을 집 밖으로 흘려보내는 과정은 나타나지 않는다.

**[39~42] (현대소설) 김소진, 「쥐잡기」**

이 작품은 주인공인 민홍이 돌아가신 아버지를 회상하며 아버지의 생애를 재구성하고 있는 작품이다. 민홍은 '쥐잡기'의 행위를 통해, 작년에 동일한 행위에 매진하던 아버지의 초라한 모습을 회상하고 그 속에 감추어진 아버지의 정신적인 상처를 깨닫게 된다. 아버지는 전쟁 포로로서 남한을 선택한 대가로 평생 상처를 짊어지고 살아간다. 현실에서 경제적으로 무능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표상되는 그의 전쟁 체험은 실은 개인의 몫이 아니라 시대의 몫일 수밖에 없다는 작가의 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아버지에 대한 반감을 가졌던 주인공은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재구성하는 과정을 통해 그의 정신적 상처를 감지하고 아버지를 이해하는 데다가서게 된다.

**39. [출제의도] 작품의 서술상 특징을 파악한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 앞부분에서는 아버지가 전쟁 포로로 남한과 북한 중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장면을 회상하고 있는데, 이는 아버지의 말을 아들인 민홍이 다시 떠올리는 장면이다. 아버지의 독백을 통해 그의 내면과 더불어 이를 마주한 민홍의 내면이 드러난다. 또한 <중략 부분의 줄거리> 뒷부분은 민홍이 잡으려는 쥐와 마주하는 장면으로, 쥐잡기의 행위를 아버지에 대한 기억과 연결하며 자신의 내면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풀이] ① 작품 전체의 주된 서술자는 민홍으로, 이야기 속에서 전달하다가 이야기 밖에서 전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아버지의 전쟁 체험에 관한 사건과 현재 민홍의 쥐잡기가 동시에 벌어진 사건이라고 보기 어렵다. ④ 인물의 표정 변화나 내면의 변화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를 통해 그 인물의 특성을 부각한다고 볼 수 없다. ⑤ 서술자인 민홍이 관찰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재구성한다고 볼 수 있으나, 사건을 객관적으로 전달해서 사실성을 높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40. [출제의도] 외재적 준거를 통해 작품을 감상한다.**

<보기>는 '호각 소리'에 따라 결정을 강요당하고 갈등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 전쟁이라는 상황 자체의 폭력성과 전쟁이 개인에게 상처로 작용함에 관한 내용이다. '여기 한번 나와 있으니까니 못 가갔드란 말이야.'라는 아버지의 말은, 북한에 가족을 두고 왔지만 다시 돌아가지 못한 자신의 결정에 대한 상처로 볼 수 있다. '부모처자'는 북한에 있는 고향에 두고 온 가족을 의미하므로 남한을 선택한 것이 '부모처자'를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답풀이] ① 짧은 시간 안에 남한 행이든 북한 행이든 결정을 내리라는 '호각 소리'는 개인에게 작용하는 전쟁의 폭력성과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③ 눈물을 보이며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는 아버지를 마주한 민홍이 '울컥하는' 감정을 느낀 것은, 그가 아버지의 슬픔을 이해하고 있음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④ 민홍이 본 '아버지의 야윈 잔등'은 남한에서 나약하고 소외된 모습으로 살아온 아버지의 삶과 연결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민홍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떠올린 '고생대의 한 화석'은 아버지가 전쟁의 상처를 평생 끌어안고 '가슴 답답한 세월의 무게'를 견디며 화석처럼 갇혀 살아왔음을 드러내고 있다.

**41.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이해한다.**

㉞는 민홍이 마주한 쥐로, 어머니인 철원네가 자신에게 요구했던 '쥐잡기' 행위의 대상이다. 민홍은 쥐를 잡

으러다가 실패하고 ‘골목의 어둠 속으로 유유히’ 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어지는 장면에서 아버지의 말을 떠올리기도 하고 ‘입을 굳게 다물어’ 보며, ‘느껴온 감정’과 함께 ‘겨울의 출구가 보이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이를 통해 ㉔가 ‘골목의 어둠 속’으로 사라지자마자 ㉔에 대한 아버지의 말을 내뱉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오답풀이]** ① ‘에유, 어찌 된 애가 ~ 털이 훌떡 벗겨져서는…….’ 부분에서 민홍이 철원네가 자신에게 한 말을 떠올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가게 문턱을 향해 기어가고’ 있는 쥐를 발견한 민홍은 ‘철원네가 말한 용모파기와 일치’하는 쥐를 보며 긴장하고 있다. ③ 민홍은 쥐를 보며 ‘저 정도면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연탄집게를 들어올렸다. 이거면 족하다.’고 느끼고 집중하고 있다. ⑤ 민홍은 쥐를 놓치고 나서 ‘아아, 나의 어리석음이여!’라고 낮은 신음을 흘리고 있다.

**42. [출제의도] 인물의 처지와 심리·태도를 이해한다.**

‘살금살금’은 아버지의 눈에 들어온 ‘흰쥐’의 모습을 의미하는 말로, 가족을 걱정하는 마음을 들키고 싶지 않은 아버지의 바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풀이]** ① ‘뒤죽박죽’은 복도에서 사람들이 이쪽저쪽으로 오가는 혼란스러운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② ‘시적시적’은 ‘머릿속이 뿡뿡그렁그렁하게 비어’ 별 생각이 없던 아버지가 사람들이 ‘날래 넘어오라구’ 난리를 치자 별 의지 없이 이동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④ ‘살랑살랑’은 ‘흰쥐가 꼬랑지’를 흔드는 모습으로, 아버지가 그것을 따라 남쪽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는 상황과 그 심리를 내포하고 있다. ⑤ ‘저벅저벅’은 ‘감찰원장들’이 걸어 들어오는 상황을 드러낸 말로, 아버지가 느낀 위기감과 중압감을 드러내고 있다.

**[43 ~ 45] (현대시) (가) 서정주, 「외할머니네 마당에 올라온 해일」/ (나) 장석남, 「살구꽃」**

**(가) 서정주, 「외할머니네 마당에 올라온 해일」**

이 작품은 ‘마당’에 밀려온 ‘해일’을 보고 이를 ‘바다’에서 돌아가신 외할아버지의 ‘혼신’으로 여기는 외할머니의 모습을 통해 외할머니의 한스러운 그리움과 시공간을 초월한 사랑을 보여 주고 있다. 이 작품에서 시의 의미를 형성하는 두 축은 ‘해일’과 ‘풀밭길’이라 할 수 있다. ‘풀밭길’을 통해 ‘해일’은 바닷물이자 ‘할아버지의 혼신’이라는 의미를 획득하게 되고, 이를 통해 ‘신랑’을 기다리는 ‘할머니’의 애절한 심정을 형상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 시에서 ‘바다’는 할아버지를 죽음에 이르게 한 공간이자 재생으로서의 공간적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일상적인 삶의 공간인 ‘외할머니네 마당’은 죽음의 세계에 존재하는 외할아버지와 만남이 이루어지는 신비스러운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시상의 전개는 순환성과 영원성을 추구하는 작가의 세계관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나) 장석남, 「살구꽃」**

이 작품은 하늘과 땅의 경계에서 피어난 ‘살구꽃’을 통해 세계의 조화와 화합을 추구하고 있는 작품으로, 살구꽃이 핀 광경을 바탕으로 ‘살구꽃’과 바느질이라는 이질적인 속성을 연결하여 의미를 확장해 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살림살이의 사연’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하늘을 향한 간구와 그들의 소리를 듣고 내려온 ‘신(神)’의 위로가 ‘살구꽃’으로 형상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시에서 꽃이 핀 자리는 삶의 상처로 인한 흉터가 아닌 그 상처를 감싸고 케맨 봉합의 흔적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마지막 연의 ‘어머니’는 치유의 의미를 환기하고 있다. ‘어머니에, 하늘에 우리를 케매 감친 굵은 실밥, 자국들’은 ‘살구꽃’이 땅의 존재인 ‘우리’를 ‘하늘’에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이 시는 뜬어진 것들을 봉합하고 하늘과 땅을 이어 주는 ‘살구꽃’을 통해 치유와 화합의 세계를 추구하고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43. [출제의도] 작품을 비교하여 표현상의 공통점을 파악한다.**

(가)에서는 ‘풀밭길’의 푸른색, ‘연지’의 붉은색, ‘청사초롱’의 파란색과 빨강색의 이미지를 통해, (나)에서는 ‘흰빛에 분홍 얼룩’의 색감을 통해 시의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계절의 변화는 (나)만 해당된다. ② 수미 상관의 방법은 (가), (나) 모두 사용되지 않았다. ③ (가)에서는 영탄적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다. ④ (가)는 화자가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한 어조를, (나) 또한 화자가 혼자 이야기하는 말투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독백체와 대화체가 교차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44. [출제의도] 외재적 준거를 통해 작품을 비교하여 시어의 의미를 이해한다.**

(가)에서 ‘해일’을 ‘할아버지의 혼신’으로 여기는 ‘할머니’의 심정은 그 옛날 ‘신랑’을 맞이하듯 그립고 설렌 마음이다. 그러나 그 속에는 40여 년의 세월을 홀로 기다려 온 간절함에 대한 회한 또한 담겨 있다. 시는

‘할머니’의 이러한 심정을 ‘불 밝’히는 행동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반면 (나)의 화자가 ‘우리’에게 ‘불을 켜’기를 촉구하는 것은 살구 열매가 영글어 오는 것에 대한 설렘과 기대, 그런 마음이 가져다주는 정신적 충족감(‘한 끼니쯤은 굶어 보자’)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에서는 ‘할머니’의 회환이 드러난다고는 할 수 있으나 화자의 회환은 드러나지 않고 있고, (나)에서도 화자의 회환은 드러나지 않고 있다.

**[오답풀이]** ① ‘해일’은 실제 바닷물이지만, ‘신랑이 돌아오는 풀밭길이 있’다는 진술을 통해 ‘풀밭길’은 죽은 할아버지가 돌아오는 길이 된다. 따라서 ‘해일’과 ‘풀밭길’은 의미상 서로 영향을 미치는 상호 작용을 통해 허구적 상황이 시적 진실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② ‘바다’는 ‘갑술년’에 할아버지를 죽음에 이르게 한 공간이지만, ‘해일’을 통해 할아버지가 환생한 공간이기도 하다. 따라서 ‘바다’는 죽음과 재생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③ 공중에 ‘떠 있’는 살구꽃은 ‘하늘’을 향하는 땅의 사연들과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 만난 접점에서 피어난 꽃이다. 따라서 ‘살구꽃’은 상승과 하강의 심상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④ ‘해일’이 물러옴으로써 육지와 바다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혼신’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삶과 죽음의 경계마저 허물어졌다. ‘살구꽃’ 또한 ‘하늘’과 ‘땅’을 이어 주는 매개적 속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해일’과 ‘살구꽃’은 두 세계의 만남과 확장에 관여한다고 볼 수 있다.

**45. [출제의도] 외재적 준거를 통해 작품을 감상한다.**

‘살구꽃’은 상승과 하강의 이미지가 만난 지점에서 피어난, 그래서 공중에 ‘흰 돛배처럼 떠 있다’라고 진술되고 있다. 이 시의 공간을 하늘의 공간, 땅의 공간, 하늘과 땅의 경계 공간으로 구분할 때, ‘살구꽃’은 하늘과 땅의 경계가 되는 공간에 위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살구꽃’을 의미하고 있는 ‘흰 돛배처럼 떠 있’는 ‘제 얼굴로 던져 버린 눈빛’은 땅과 하늘의 경계에 있는 존재로서의 의미를 형상화하고 있는 것이므로 땅의 이미지라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어머니’는 ‘멀리서’ ‘오시듯’ 찾아와 상처를 치유해 주는 존재로서의 의미를 ‘살구꽃’에 부여해 주는 시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어머니’를 바느질의 속성과 연결하여 ‘어머니에, 하늘에’ ‘우리’를 봉합한 것이 ‘살구꽃’이므로, 이를 통해 치유와 화합의 세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② ‘굵은 실밥, 자국들’은 ‘살구꽃’을 비유한 것으로 ‘살구꽃’이 바느질의 속성을 통해 상처를 봉합한 흔적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나타내어 치유와 화합이라는 주제 의식을 드러내는 데 기여하고 있다. ④ ‘살림살이의 사연’, ‘제일로 낮은 말소리, 발소리’는 삶의 상처를 떠올리게 하는 시구이다. 이를 듣고 위로하기 위해 내려온 신과 이러한 사연과 소리가 만나는 지점에서 핀 꽃이 ‘살구꽃’이므로, ‘살구꽃’은 삶의 위로와 위안적 존재가 될 수 있다.